

충남의 지역불균형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 관 료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연구위원
krlee@cni.re.kr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의 지역불균형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음.

CONTENTS

1. 서론
2. 지역불균형의 개념과 분석방법
3. 충남 지역불균형의 실태
4. 결론

요 약

- 충남의 지역불균형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충남통계연보와 충남사회지표를 활용하여 개별 세부변수의 데이터를 구축하였음.
 - 충남 지역불균형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의 4개 연도를 비교시점으로 설정하였음.
- 충남지역의 불균형은 특정 시설 혹은 기능에서 15개 시군의 공간적 편차로 정의하도록 함. 지역불균형은 지니계수로 산출하도록 함.
 - 시군간 완전히 균등하게 배분되었다면 지니계수는 0이 되고, 완전한 불평등한 상태라면 1임.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 이상이면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로 평가함.
- 분석결과에 의하면, 충남의 지역불균형의 수준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최근 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총 37개의 세부변수 중에서 불균형지수가 0.4를 넘는 것으로 20개에 이르고 있음. 불균형지수가 높은 영역은 북부지역의 집중도가 높은 분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충남도 균형발전정책의 정책과제를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기존 균형발전지표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북부지역에 대응한 새로운 발전축과 거점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함.
 - 이외에도 보육시설에 대한 지역균형 강화, 지방재정 균형제도의 도입, 비북부지역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그리고 균형지표의 영역 확대 및 자료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01 서론

- 지역불균형은 인간사회의 근본적 문제이고, 공공부문의 중요한 정책영역임. 최근 지역불균형은 공간적 불평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까지 논의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 (Wei, 2015).
 -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장은 지역불균형을 감소시키기 보다는 필연적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경제성장에 의한 수렴효과는 비선형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Galor, 1996; Pritchett, 1997; Lucas, 2000; Barris, D., E. Strobl, 2009).
- 불균형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인구와 소득의 공간적 불균형을 중심으로 다루었고, 공간적 수준은 주로 해당 국가의 행정구역으로 설정되었음
 - 그러나 최근 지역불균형의 영역이 인구, 소득에 불균형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보건, 정치 등의 불균형으로 확대되고 있음(Silva et al., 2015).
 - 반면 우리나라의 선행연구에서는 인구, 경제, 사회, 문화에 초점을 두고 지역불균형을 논의 하였을 뿐, 그 대상영역을 환경, 정치 등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도 있음.
- 지역불균형은 다층적 관점(multi-scale)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최근의 연구경향은 중간적 관점(meso-scale)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
 - 그 결과 개인 혹은 가구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경향은 많이 줄어들었고, 주로 공간적 관점에서 소득불균형을 논의하고 있음(Breau, 2015, Dorling, 2015, Essletzbichler, 2015).
 - 이러한 경향에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불균형에 대한 논의는 Rodríguez-Pose & Hardy(2015), Silva et al.(2015) 등으로 매우 한정적임.

- 따라서 지역불균형에 대한 연구가 도시와 농촌, 그리고 농촌 내부의 지역불균형에 대한 형태로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한편 충남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장이 충남의 북부지역, 예컨대 천안, 아산, 서산, 당진으로 집중되는 문제를 내재하고 있음.
 - 충남의 북부지역은 면적측면에서는 충남의 31.9%에 해당하지만, 2018년 현재 인구의 61.5%와 사업체수의 57.8%, 그리고 GRDP의 69.2%를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북부지역이 충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5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충남에서 발생하고 있는 북부지역의 집중의 문제는 공간적으로 양극화, 즉 불균형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게 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 지역불균형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음.
 - 본 연구는 불균형의 영역을 인구, 경제, 도시기반 중심에서 범죄 및 재난, 정치권력, 주관적 행복 등으로 확대해서 접근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1. 지역불균형의 개념과 원인

- 지역불균형은 경제성장률과 경제수준의 공간적 편차현상을 의미함(김용웅 외, 2009).
 - 지역불균형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변이계수, 분산, 지니계수, 타일계수 등을 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분석방법의 수월성 측면에서 변이계수를 이용함.
 - 변이계수는 분산을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표현되는 바, 서로 다른 평균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일부 연구에서는 자료의 미모수성을 고려하여 결손지수를 사용하기도 함.
- 이러한 지역불균형은 성장과 격차의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함. 전통적으로 성장과 격차를 바라보는 시각은 수렴론과 확산론으로 대별할 수 있음.
 - 성장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지만 궁극적으로 격차가 해소된다고 보는 수렴론으로는 신고전적 지역성장론과 불균형성장론을 들 수 있음. 그리고 성장에 따라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확산론으로는 종속이론을 들 수 있음(고영선 외, 2008).
- 한편 지역불균형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본과 노동력 및 기술의 차이, 자연 및 인간자원의 불균등한 분포와 자원의 지리적 집중화에 따른 집적경제성의 차이 및 규모경제성 등을 열거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지역불균등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요인들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 영향의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지역불균형의 분석은 공간과 시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 최근 연구에 의하면, 지역불균형은 종 모양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지역불균형은 선진국에서 더 커지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작게 됨. 그리고 저개발

국가에서는 지역불균형이 증가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지역불균형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됨(S. Barrios, E. Strobl, 2009).

- 이러한 지역불균형의 역동성은 유럽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음. 예컨대 2004년 EU에 가입한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는 높은 경제성장율을 나타냈지만, 궁극적으로 지역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국가로 등장하게 되었음(Quah, 1996; Petrakos, Saratsis; 2000).
- 한편 유럽연합의 2004년 보고서에 의하면,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의 국가에서는 1인당 GDP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만, 지역불균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Davies, Hallet, 2002; Petrakos et al., 2003).

2. 분석변수

-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역불균형의 영역과 세부지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임. 본 연구는 영역적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함.
 -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내용 및 충남통계연보와 사회조사에서 활용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설정하도록 함.
- 본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인구, 경제 및 일자리, 도시기반, 주택, 교육기반, 문화체육, 의료, 범죄 및 재난, 지방재정, 정치권력, 그리고 주관적 행복의 11가지 영역, 37개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인구부문에서는 인구수와 65세 이상 인구, 그리고 15세 미만 인구를 분석변수로 설정하도록 함.
 - 기존 연구에서는 15세 미만 인구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음. 그러나 전체적으로 고령화되는 사회를 고려할 때, 고령인구는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젊은층 인구는 특정지역에 집중한다는 인구 사회적 특징을 고려할 때, 65세 이상 인구 보다는 15세 미만 인구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둘째, 경제 및 일자리부문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수, 사업체종사자수, 고용율, 실업율, 그리고 GRDP를 중심으로 분석하도록 함.

- 경제 및 일자리에서 개인가처분소득, 가구소득 등이 분석이 요구되지만, 이들 변수들은 시군단위에서 구축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음.
- 셋째, 도시기반부문에서는 도로연장, 상업지역면적, 공업지역면적, 상수도보급율, 하수도보급율, 그리고 도시공원면적 등과 같이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변수를 중심으로 구성을 하였음.
- 넷째, 주택부문에서는 총주택수와 20년 미만 주택수를 분석변수로 사용하도록 함.
 -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주택부문을 도시기반부문에 포함을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최근 주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였음.
- 다섯째, 교육기반부문에서는 보육시설수, 초중고등학교수, 고등학생수, 그리고 대학수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교육기반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고,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보육시설과 대학수 등을 다루어 왔음.
- 여섯째, 문화체육부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수, 문화시설수, 체육시설수로 변수를 구성하였음.
- 일곱째, 의료부문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사수와 병상수를 분석변수로 설정하였음.
- 여덟째, 범죄 및 재난부문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대부분 다루지 않고 있는 영역임. 본 연구에서는 범죄 및 재난부문의 분석변수로 강력범죄건수, 화재건수, 그리고 교통사고건수를 분석변수로 구성하였음.
- 아홉째, 지방재정부문에서는 재정수입액, 취득세, 주민세합을 분석변수로 사용하였음.
 - 이들 분석변수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한 변수들임.

- 열 번째, 정치권력부문은 기존 연구에서 대부분 다루지 않고 있는 영역임. 본 연구에서는 정치권력부문의 분석변수로 투표율, 도의원수, 국회의원수로 설정하였음.
 - 우리나라에서는 지방 및 국회의원 수를 기본적으로 인구비례성을 강조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의 경우 정치권력을 더 크게 갖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큼.
- 열한번째, 주관적 행복부문 또한 기존 연구에서 주로 다루지 않고 있던 영역임.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 자살률, 그리고 일반인에 대한 신뢰 등을 분석변수로 설정하였음.
 - 그러나 주관적 행복부문의 변수들은 본 연구의 최근 15년간 연속적인 자료를 구득하기 곤란하여 분석의 한계가 내재되어 있음.

[표 1] 지역불균형의 분석변수

구분	분석변수	단위	출처
면적	행정구역면적	km ²	충남/시군통계연보
인구	인구수	명	충남/시군통계연보
	65세 이상 인구	명	충남/시군통계연보
	15세 미만 인구	명	충남/시군통계연보
경제 및 일자리	사업체수	개소	충남/시군통계연보
	사업체종사자수	명	충남/시군통계연보
	고용율	%	충남사회지표
	실업률	%	충남사회지표
	GRDP	백만원	충남/시군통계연보
도시기반	도로연장	km	충남/시군통계연보
	상업지역면적	1000m ²	충남/시군통계연보
	공업지역면적	1000m ²	충남/시군통계연보
	상수도보급율	%	충남/시군통계연보
	하수도보급율	%	충남/시군통계연보
	도시공원면적	1000m ²	충남/시군통계연보
주택	총주택수	호	충남/시군통계연보
	20년 미만 주택수	호	충남/시군통계연보
교육기반	보육시설수	개소	충남/시군통계연보
	초중고등학교수	개소	충남/시군통계연보
	고등학생수	명	충남/시군통계연보
	대학수	개소	충남/시군통계연보
문화체육	도서관수	개소	충남/시군통계연보
	문화시설수	개소	충남/시군통계연보
	체육시설수	개소	충남/시군통계연보
의료	의사수	명	충남/시군통계연보
	병상수	개	충남/시군통계연보
범죄 및 재난	강력범죄건수	건	충남사회지표
	화재건수	건	충남/시군통계연보
	교통사고건수	건	충남/시군통계연보
지방재정	재정수입액	백만원	충남/시군통계연보
	취득세	천원	충남/시군통계연보
	주민세합	천원	충남/시군통계연보
정치권력	투표율	%	선관위
	도의원수	명	선관위
	국회의원수	명	선관위
주관적 행복	삶의 만족도	점/10점	충남사회지표
	자살률	명/10만명	충남사회지표
	일반인에 대한 신뢰	점/10점	충남사회지표

3. 분석방법

- 충남의 지역불균형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국가차원의 자료를 활용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충남통계연보와 충남사회지표를 활용하여 개별 세부변수의 데이터를 구축하였음. 한편 충남 지역불균형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의 4개 연도를 비교시점으로 설정하였음.
- 충남의 지역불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구축 단위는 15개 시군단위로 설정하였음.
 - 최근 지역불균형을 다차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경향을 고려할 때, 읍면동 수준에서 데이터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재 통계자료가 대부분 시군 단위에서 공표되고 있어 현실적 한계가 있음. 따라서 15개 시군별로 4개 시점의 데이터가 통합된 패널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음.
- 충남지역의 불균형은 특정 시설 혹은 기능에서 15개 시군의 공간적 편차로 정의하도록 함. 이러한 지역불균형은 지니계수로 산출하도록 함.
 - 지니계수는 15개 시군의 특정 변수값을 규모가 작은 지역부터 각각 횡축과 종축에 누적비율로 표시하면 반달형의 곡선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니계수는 대각선에 의해 형성된 삼각형의 면적과 반달형의 면적의 비율임.
 - 따라서 시군간 완전히 균등하게 배분되었다면 지니계수는 0이 되고, 완전한 불평등한 상태라면 1이 되며, 다음의 <식 1>을 통해 산출함.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 이상이면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로 평가함.

$$Gini = \frac{1}{2n^2\mu_t} \times \sum_{i=1}^n \sum_{j=1}^n |y_i - y_j| \quad \langle \text{식 2} \rangle$$

여기서, μ_t 는 t 연도의 평균값

y_i 는 i 지역의 실제값

y_j 는 j 지역의 실제값

03

충남 지역불균형의 실태

1. 인구부문

- 인구수의 불균형지수는 2003년 0.346에서 2018년 0.457로 악화되었고, 15세 미만 인구의 불균형지수도 2003년 0.428에서 2018년 0.551로 악화되었음. 반면 65세 이상 인구의 불균형도는 2003년 0.213에서 2018년 0.265로 유사한 수준임
- 따라서 인구부문 중 인구수와 15세 미만 인구의 불균형지수는 높은 반면, 65세 이상 인구의 불균형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됨.

2. 경제 및 일자리부문

- 사업체수의 불균형지수는 2003년 0.356에서 2018년 0.427로 증가하였고, 사업체종사자수 불균형 지수 또한 2003년 0.438에서 2018년 0.504로 증가하였으며, GRDP의 불균형지수도 동 기간 중 각각 0.477에서 0.558로 증가하였음.
- 반면 고용율과 실업율의 불균형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우선 고용율의 불균형 지수는 2003년 0.044에서 2018년 0.035로 감소하였고, 실업율의 불균형지수 또한 2003년 0.226에서 2008년 0.216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경제 및 일자리부문에서는 사업체수, 사업체종사자수, GRDP의 불균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3. 도시기반부문

- 도시기반의 불균형은 다시 부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됨. 우선 도로연장의 불균형은 2003년에 0.278이었으나, 2018년에는 0.227로 감소하였음.
- 상업지역면적의 불균형은 2003년 0.483에서 2018년에 0.410으로, 공업지역면적의 불균형은 2003년에 0.689에서 2018년에 0.60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상수도보급율, 하수도보급율의 불균형도 2003년에 비해서 2018년에 각각 0.158에서 0.026으로, 0.280에서 0.11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도시공원면적의 불균형은 2003년에 0.443에서 2018년 0.448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도시기반부문은 대체적으로 불균형의 문제가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다만 상업지역면적, 공업지역면적, 도시공원면적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균형의 정도가 심각하지만, 최근 15년간 정체 혹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4. 주택부문

- 총주택수의 불균형지수는 2003년 0.322에서 2018년 0.43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년 미만 주택수의 불균형지수는 2008년 0.426에서 2018년 0.28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주택부문의 경우 총주택수의 불균형은 높은 편이지만, 20년 미만 주택수의 불균형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됨.

5. 교육기반부문

- 보육시설수의 불균형지수는 2003년 0.486에서 2018년 0.59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초·중·고등학교학교수 불균형지수 또한 2003년 0.250에서 2018년 0.273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생수의 불균형지수는 2003년 0.396에서 2018년 0.492로, 대학수의 불균형지수는 2003년 0.675에서 2018년 0.68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보육시설수와 고등학생수의 불균형지수는 높고, 최근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반면 대학수의 경우 불균형지수가 높지만,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초·중·고등학교수의 경우 불균형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됨.

6. 문화체육부문

- 도서관수의 불균형지수는 2003년 0.258에서 2018년 0.231로 감소하였고, 체육시설수의 불균형지수 또한 2003년 0.388에서 2018년 0.366으로 감소하였음.
- 문화시설수 불균형지수의 경우 2003년 0.359에서 2018년 0.395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문화체육부문의 불균형지수는 다른 부문에서 비해서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7. 의료부문

- 의사수의 불균형지수는 2003년 0.565에서 2018년 0.56로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병상수의 불균형지수는 2003년 0.563에서 2018년 0.495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의료부문의 불균형지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최근 15년간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8. 범죄 및 재난부문

- 강력범죄건수의 불균형지수는 2003년 0.433에서 2018년 0.490으로 증가하였고, 교통사고건수의 불균형지수 또한 2003년 0.321에서 2018년 0.45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화재건수의 불균형지수는 2003년 0.172이고, 2018년 0.26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15년간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범죄 및 재난부문의 경우 강력범죄건수와 교통사고건수의 불균형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그 폭이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됨.

9. 지방재정부문

- 재정수입액의 불균형지수는 2003년 0.379에서 2018년 0.423으로 증가하였고, 주민세합의 불균형지수 또한 2003년 0.515에서 2018년 0.611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취득세의 불균형지수는 2003년 0.569에서 2018년 0.561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재정부문의 불균형지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소폭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10. 정치권력부문

- 투표율의 불균형지수는 2003년 0.040에서 2018년 0.016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불균형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도의원수의 불균형지수는 2003년 0.120에서 2018년 0.248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국회의원수의 불균형지수는 2003년 0.256에서 2018년 0.696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불균형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정치권력부문에서 국회의원수의 불균형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향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11. 주관적 행복부문

- 삶의 만족도 불균형지수는 2013년 0.034에서 2018년 0.010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살률의 불균형지수 또한 2003년 0.123에서 2018년 0.07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일반인에 대한 신뢰 불균형지수는 2018년 0.023으로 나타남.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주관적 행복부문의 불균형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됨.

[표 2] 충남의 지역불균형의 실태

구분	변수명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	증감
인구	인구수	0.3457	0.3958	0.4303	0.4570	0.1113
	65세 이상 인구	0.2130	0.2285	0.2452	0.2651	0.0521
	15세 미만 인구	0.4281	0.4762	0.5118	0.5514	0.1233
경제 및 일자리	사업체수	0.3562	0.3858	0.4040	0.4274	0.0712
	사업체종사자수	0.4380	0.4705	0.4933	0.5039	0.0659
	고용율	0.0444	0.0433	0.0551	0.0345	-0.0099
	실업률	0.2263	0.2185	0.2800	0.2161	-0.0102
	GRDP	0.4768	0.5302	0.5845	0.5583	0.0815
도시기반	도로연장	0.2783	0.2552	0.6922	0.2267	-0.0516
	상업지역면적	0.4832	0.4282	0.4130	0.4103	-0.0729
	공업지역면적	0.6889	0.6257	0.6222	0.6082	-0.0807
	상수도보급율	0.1579	0.1134	0.0394	0.0258	-0.1321
	하수도보급율	0.2800	0.1968	0.1064	0.1185	-0.1615
	도시공원면적	0.4425	0.4240	0.4562	0.4481	0.0056
주택	20년 미만 주택수	0.0000	0.4259	0.4675	0.2881	0.2881
	총주택수	0.3221	0.3704	0.4140	0.4305	0.1084
교육기반	초중고등학교수	0.2501	0.2653	0.2627	0.2727	0.0226
	보육시설수	0.4856	0.5246	0.3019	0.5991	0.1135
	대학수	0.6745	0.7212	0.6889	0.6867	0.0122
	고등학생수	0.3964	0.4514	0.4711	0.4919	0.0955
문화체육	도서관수	0.2583	0.2667	0.2311	0.2311	-0.0272
	문화시설수	0.3594	0.3243	0.3732	0.3948	0.0354
	체육시설수	0.3877	0.3475	0.3935	0.3664	-0.0213
의료	의사수	0.5649	0.4970	0.6602	0.5653	0.0004
	병상수	0.5626	0.4438	0.4661	0.4954	-0.0672
범죄 및 재난	강력범죄건수	0.4330	0.5332	0.5020	0.4902	0.0572
	화재건수	0.1721	0.2081	0.2445	0.2684	0.0963
	교통사고건수	0.3212	0.3415	0.4441	0.4591	0.1379
지방재정	재정수입액	0.3785	0.4027	0.4244	0.4226	0.0441
	취득세	0.5693	0.5128	0.5032	0.5613	-0.0080
	주민세합	0.5150	0.5803	0.5142	0.6114	0.0964
정치권력	투표율	0.0398	0.0531	0.0375	0.0160	-0.0238
	도의원수	0.1200	0.0583	0.2324	0.2481	0.1281
	국회의원수	0.2564	0.2564	0.2564	0.6963	0.4399
주관적 행복	삶의 만족도	0.0000	0.0000	0.0341	0.0103	0.0103
	자살률	0.1228	0.1674	0.1488	0.0783	-0.0445
	일반인에 대한 신뢰	0.0000	0.0000	0.0000	0.0225	0.0225

04 결 론

-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의 지역불균형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지역불균형의 분석변수로 인구, 경제 및 일자리, 도시기반, 주택, 교육기반, 문화체육, 의료, 범죄 및 재난, 지방재정, 정치권력, 주관적 행복의 11가지 영역, 37개 변수로 설정하였음.
- 충남의 지역불균형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충남통계연보와 충남사회지표를 활용하여 개별 세부 변수의 데이터를 구축하였음.
 - 충남 지역불균형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의 4개 연도를 비교시점으로 설정하였음.
- 충남지역의 불균형은 특정 시설 혹은 기능에서 15개 시군의 공간적 편차로 정의하도록 함. 이러한 지역불균형은 지니계수로 산출하도록 함.
- 분석결과에 의하면, 충남의 지역불균형의 수준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최근 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총 37개의 세부변수 중에서 불균형지수가 0.4를 넘는 것으로 20개에 이르고 있음. 불균형지수가 높은 영역은 북부지역의 집중도가 높은 분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충남도 균형발전정책의 정책과제를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기존 균형발전지표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북부지역에 대응한 새로운 발전축과 거점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함.
 - 이외에도 보육시설에 대한 지역균형 강화, 지방재정 균형제도의 도입, 비북부지역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그리고 균형지표의 영역 확대 및 자료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본 리포트는 충남연구원 2019년 전략연구과제 “충청남도 불균형의 실태와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를 요약, 재구성한 것임

이 관 료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연구위원
krlee@cni.re.kr

고영선외(2008), 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전략, KDI.

김용웅외(2009), 신지역발전론, 서울: 한울.

Barris, S., E. Strobl(2009), "The Dynamics of regional inequalitie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Vol. 39, pp. 575~591.

Wei, Y. D.(2015), "Spatiality of regional inequality", Applied Geography, Vol. 61., pp. 1~10.

Williamson, J. G.(1965), Regional Inequality and the Process of National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13, No. 4, pp. 3~82.

Barrios, S., E. Strobl(2009), "The Dynamics of regional inequalitie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Vol. 39, pp. 575~591.